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전 제 성**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Geography to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Jeon, Je Seong**

요약 :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조직화,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학자들의 전략적 노력 덕분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기관 형성자’로서 정치학계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연대 형성자’로서 인류학계의 리더십도 발휘되고 있다. 지리학은 해외지역연구와 분리할 수 없는 학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리학계의 기여는 아직 미진하다. 앞으로 지리학계는 동남아연구의 미개척 주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분절현상을 극복하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러한 지리학의 역할을 해외지역연구의 ‘지평 확장자’라 부르고자 한다.

주요어 : 해외지역연구, 현지조사, 지리교육, 정치학, 인류학, 동남아

Abstract :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thanks to strategic and collective efforts invested by the area specialists. Especially, political scientists’ contribution as ‘institution builders’ were remarkable. Anthropologists’ leadership as ‘solidarity makers’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s now experimenting. In terms of quantity, contribution of geography to area studies is not satisfactory yet, though geography is regarded as a discipline inseparable with area studies. However, geographers as ‘horizontal networkers’ can contribute to area studies through conducting research in unexplored subject and connecting the human and the physical science.

Key Words : area studies, fieldwork, geography education, political science, anthropology, Southeast Asia

1. 서론

지리학은 역사학 및 인류학과 함께 “지역연구와 가까운 분과학문”이고, 심지어 “지역에서 유리되는 순간 연구 자체의 성립이 위협받는” 분과학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쓰보우치, 1997, 73-74).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시작하여, 대항해와 지리상의 발견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지리학사는 “비록 모든 지리학자가 해외지역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지역연구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지리학에서도 지리학의 핵심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이전, 2004, 224-25). 그런데 한국 지리학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해외지역연구(area studies) 축적의 측면에서 지리학의 기여가 미진하고, 특히 신흥지역에 관한 연구는 더 미미한 수준이다. 지리학은 마땅히 지

니고 있는 힘과 가능성을 해외지역연구분야에서 사용하고 실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역지리학회는 지리학과 지역학의 공존가능성에 관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고, 인도네시아전문 정치학도에게 경험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연구의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해외지역연구영역에서 지리학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필자는 소임대로 우선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개관하고자 한다. 평소 주장하였듯이 한국의 동남아연구 발전이 전문가집단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전제성, 2006; 전제성·이재현, 2008; 오명석 등, 2008; 박승우, 2009; 김형준·전제성, 2013)을 압축하고 최근 데이터를 보강하여 최소한의 약사와 현황을 제시하였다. 발전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jeseong@gmail.com).

만 아니라 한계도 지적하였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데 지리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어서 동남아 지역연구 발전과정에서 학문분과별 기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구의 이상은 학제성이지만 현실은 학과별 아성에 포위되어 있다. 필자는 이상 추구를 지속하되 현실 역시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정치학의 기여에 관한 필자 논문(전제성, 2010)의 요약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기수로 등장한 인류학자들의 기여에 관한 이야기가 부연될 것이다. 학문분과별 업적 분석은 지리학의 기여를 상상하고 촉구하는 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 현황을 지리학자들의 기존 연구(주로 김종욱, 1994; 김종규, 2001; 손명철, 2002; 이강원, 2004)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리학계의 기여를 촉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리학자들이 해외지역연구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연구 지평을 대폭 확장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지역연구의 도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시각을 피력할 것이다.

2. 한국에서 동남아연구의 발전: 과정 및 전략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한 분야이다. 한국의 여타 해외지역연구 분야(이성형·전제성, 2008; 엄한진, 2011; 이지은, 2011; 조원빈, 2012)와 비교해 보아도 괄목할 만하고, 연구자금 지원의 격감으로 동남아 연구 열기가 한풀 꺾인 미국의 경우와 대조해 볼 때도 그러하다(McVey, 1998; Kuhonta et al., 2008). 인도네시아의 시사주간지 템포(Tempo: Cheta, 2011)가 외국인 인도네시아연구자 특집을 내면서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의 연구를 한 꼭지로 다룬 것도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가 급부상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동남아 11개국의 양자적(bilateral) 관계 심화, 아세안대화관계(ASEAN Dialogue Partners)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매개로 하는 다자적(multilateral) 협력 확대(배병인 등,

2012; 서정인, 2012), 그리고 무역, 투자, 이주의 지속적 증대(전제성 등, 2013; 박승우, 2009, 218) 등 한국에서 동남아연구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남아 연구는 한국기업의 동남아투자가 줄을 잇던 1990년대 초반에 이어 두 번째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내 동남아연구의 성장은 연구자집단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그러한 노력은 이하에서 소개할 동남아 연구기관의 조직화와 학문후속세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일로에 있는 연구 성과의 축적도 평가받을 만하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의 증가와 분야별 추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연구의 축적과 연구자의 조직화 사이의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격차를 인식할 때 지리학의 ‘교량적’ 역할이 뚜렷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연구 기관 형성: 초대학적 ‘양 날개’ 모델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가 가시적으로 출현한 시기는 1980년대였지만, 본격적 추진은 1990년대부터, 가속적인 발전은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다. 연구자와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유학생들이 동남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귀국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1990년대, 동남아연구 신세대 박사들이 대거 등장하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동남아 지역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현지어 자료의 활용이 필수 요건인 지역연구방법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기존 세대는 대체로 새로운 세대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비교적 순조로운 세대전환 과정을 거쳤고, 덕분에 새로운 세대의 연구 경향과 풍토가 신속하게 주류화(mainstreaming) 될 수 있었다. 지역전문가들이 출현하면서 연구 분야도 외교와 경제를 넘어서 국내 정치, 문화, 사회, 역사에 관한 주제들로 확장되었다(세대별 상호작용은 전제성, 2006, 111-117; 동남아 전문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박승우, 2009).

연구 기관 형성의 측면에서는 대학 연구소들이 아니라 초대학적 조직이 중심을 이루는 독특한 발전과정을 보여주었다. 소수의 동남아 전문가들이 <동남아지역연구회>를 결성한 직후에 더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동남아학회>를 1991년에 출범시켰고 학회지(동남아시아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네트워크 조직인 동남아지역연구회를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전환시켰다. 법인화는 책임성을 갖춘 이사회를 조직하고, 사무 및 연구실 공간을 확보하고, 견고한 재정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조직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조직화 과정의 사연은 전제성, 2006, 117-122, 125-130).

한국동남아연구소는 회원 50명의 회비와 꾸준한 기부, 그리고 창설 첫해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연속 수주한 덕분에 적지 않은 경비를 충당하고 연구와 출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현재 동남아연구소로 대규모 연구비를 수주한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등이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대학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연구소들의 사업단장들 역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이사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동남아학회는 지난 20여 년간 광범한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해 왔다. 학회를 통하여 소수의 동남아 전문가들은 동남아에 관심을 지닌 다양한 학자들과 폭넓게 연결되고, 아세안(ASEAN) 및 일본의 동남아학과와 함께 조직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정례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전문가 조직인 한국동남아연구소와 연대 조직인 한국동남아학회라는 초대학적 '양 날개'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다.

미국의 동남아연구는 코넬대학교를 필두로 하는 대학별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지만(Suheiro, 1997),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가 연구중심의 역할을 굳히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독립적인 위상이라지만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 위치한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동남아지역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volunteer)에 기초한 초대학적 조직이 연구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은 한국 학계의 독특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이 일찍이 초대학적인 조직화를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동남아연구가 소수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동병상련의 소수자 정서가 연대의 기초가 되었다. 극히 소수였기에 한데 모이는데 큰 공간도 필요하지 않았고 친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지역 내적 다양성도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동남아는 하나의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내적 다양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그래서 동남아연구자들끼리 서로 배워야 한다는 기풍이 조성될 수 있었다. 소수자 위치와 지역 내적 다양성이라는 단점이 역설적으로 연구자들의 집단적 협력이라는 장점을 낳은 것이다.

2) 학문후속세대 육성: 대학원생 독회와 현지조사 지원

한국의 동남아학계는 연구기관 형성 초창기부터 후속세대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하였다. 소속 대학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1990년대에 3개 사립대(한국외대, 부산외대, 성심외전) 외에는 동남아 과목을 다수 개설한 대학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영산대(성심외전 흡수통합), 우송대, 청운대가 동남아 관련 강좌들을 개설한 대학으로 추가되었으나, 학문후속세대 육성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대학별 2006년도 동남아 과목현황은 전제성·이재현, 2008, 267). 서울대가 아시아언어문명학부(<http://asia.snu.ac.kr>)에 동남아 언어언어문명전공을 창설하고 24개 동남아 과목을 개설한 것이나, 전북대가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http://meas.chonbuk.ac.kr>)을 창설하고 학부에 6개까지 동남아 과목을 개설한 것은 극히 최근이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대학원 교육의 전기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 시절에 국제대학원들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되는 듯 했다. 당시 국제대학원들에 동남아 전공들이 더러

설립되면서 초반에, 특히 서울대의 경우 동남아연구 후속세대 육성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압도되고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 전공 한국인 전임교원 채용을 미루면서 지속적인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동남아 교육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럽고 저조한 성과 때문에 동남아학계는 후속세대육성을 위해 초대학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만 했던 것이다.

해외지역연구 후속세대 육성은 <표 1>과 같이 관심촉발, 심화학습, 현지조사라는 3단계를 거쳐 학위논문 작성함으로써 완결되는 과정이다. 동남아학계의 집단적인 노력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와 3단계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한국동남아연구소가 심화학습 단계, 한국동남아학회가 현지조사 단계의 지원을 담당하였다. 학부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1단계 프로그램은 동남아 연구자들이 소속 대학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지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해당 국가에 관한 강의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이해뿐만 아니라 네트워킹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표 2>에 보이듯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연인원 68명의 대학원생을 현지에서 연수시키는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후속세대육성의 최종단계는 한국동남아학회가 지원하고 있다. 학회도 연구초처럼 설립당시부터 후속세대를 중시하여 학술대회 발표에 대학원생들을 참여시키고 학회지 논문게재를 창간호부터 허용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후속세대육성프로그램은 대학원생 현지조사지원제도이다. 학회는 국내외의 한국인 석박사과정생들을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학위논문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조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초대학적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인 이 사업은 학회 역대 임원들이 한·아세안교류기금의 지원을 중단 없이 받기위해 투여해야만 하

표 1. 지역전문가 육성단계와 동남아 관련 육성 프로그램

단계(내용)	프로그램(시작연도)	지원기관
관심촉발 (체험·언어)	학부생 장학 사업(2008) 현지어 무료 강좌(2008)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인하대 등
심화학습 (독회·연수)	대학원생 독회(1994) 현지연수 지원(2007)	한국동남아연구소
현지조사 (조사·발표)	현지조사 지원(1999) 학회발표 및 논문게재(1991)	한국동남아학회

출처: 전제성·이재현, 2008, 277의 표 4 수정 보완.

초대학적 접근의 여력이 학부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전제성·이재현, 2008, 270-74).

한국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지역연구회 시절인 1994년부터 대학원생들을 연구회원(준회원)으로 모집하고 자율적 독회(세미나)를 후원해왔다. 이 사업은 학교별로 고립된 대학원생들을 연결하고 지역연구의 기풍을 조기에 익히도록 기획되었으며, 필자도 그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한, 연구소는 동남아의 현지학자단체와 공동운영하는 단기현지연수프로그램(Advanced Seminar)을 개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현지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방학 중 일주일 남짓 현지로 가서 아세안 출신 학생들과 함께

표 2. 한국동남아연구소의 단기현지연수 수혜자: 2007~2014년

연도	연수국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2007	말레이시아	6	2	8
2008	필리핀	8	3	11
2009	인도네시아	7	0	7
2010	태국	8	1	9
2011	필리핀	6	4	10
2013	베트남	11	0	11
2014	캄보디아	9	3	12
계		55	13	68

출처: 한국동남아연구소 내부자료(이유진 간사 제공).

표 3. 한국동남아학회의 현지조사 지원 수혜자: 1999-2013년

년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1999	8	1	9
2001	2	0	2
2002	4 (해외 1)	4 (해외 2)	8
2003	6	4	10
2005	4	4 (해외 3)	8
2006	2	3 (해외 2)	5
2007	3 (해외 1)	3	6
2008	3	3 (해외 3)	6
2009	3	2 (해외 2)	5
2010	4	3 (해외 2)	7
2011	2	2 (해외 1)	4
2012	2	3 (해외 1)	5
2013	5	2 (해외 1)	7
계	48 (해외 2)	34 (해외 17)	82

출처: 한국동남아학회 내부자료(박승우 전 학회장과 강민지 간사제공).

주의: “해외”는 외국 대학 소속 한국인 대학원생 수혜자.

는 심대한 노고의 산물이다(상세한 지원제도는 전제성·이재현, 2008, 277-81).

〈표 3〉에서 보이듯이, 한국동남아학회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연인원 82명의 석박사과정생에게 동남아 현지조사비용(석사과정 3개월, 박사과정 6개월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현지조사 지원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 어떠한 재단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일종의 학술자원봉사조직인 학회에서 성사시켰던 것이다.

3) 연구 성과의 축적: 인도네시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동남아연구는 증가일로에 있다. 한국 동남아학회지(동남아시아연구)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대국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현지어 자료를 반영한 논문들이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전제성, 2006, 122-124). 1980년대에 2권에 불과했던 동남아에 관한 학술연구서가 2000년대에는 20여권이나 출판되었다. 한국인 동남아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해외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갔다(이성형·전제성, 2008, 342-43). 인도네시아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동남아학계에서 파악이 가능한 소수의 한국인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인도네시아 연구가 해외에서 출판된 경우만도 24건에 달하였다(김형준·전제성, 2013, 101-103).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www.riss.kr) 검색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에는 1968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이래 2012년까지 43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표 4〉는 1980년대에 가시적으로, 1990년대에 증폭적으로, 2000년대 이후

표 4. 인도네시아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분야별 건수와 시기별 추이

시 기	정치외교	이공	경제무역	문화	사회	언어	역사	경영	문학	계
1968~79	6	1	2	1	2	1	0	1	0	14
1980~84	2	0	4	0	1	4	1	0	2	14
1985~89	5	0	6	0	1	5	3	0	0	20
1990~94	11	5	8	4	3	4	4	2	0	41
1995~99	12	9	10	10	8	2	3	7	2	63
2000~04	29	13	11	15	9	6	2	7	2	94
2005~09	18	16	6	15	7	7	4	3	3	79
2010~12	17	23	19	18	13	4	11	3	5	113
계	100	67	66	59	44	33	28	23	14	438

출처: 김형준·전제성, 2013, 86의 〈표 2〉를 수정.

주의: 주제와 학문분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즉, 사회연구라 하여 반드시 사회학자의 연구가 아니고 역사연구라 하여 반드시 역사학자의 연구인 것은 아님.

대폭적으로 인도네시아 연구의 양적 발전이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정치외교 분야를 필두로 하여 다수를 이루는 연구 분야가 어디인지 순서대로 열거해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 분야의 변화이다. 1980년대까지 정치외교와 경제 분야가 가장 앞섰고, 사회, 언어, 역사 분야가 뒤를 이으며 당대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공계와 문화연구가 후발주자로 등장하더니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새로운 주류로 떠올라 기성의 주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김형준·전제성, 2013, 84-88).

여기서 중시할 점이 이른바 이공계 분야의 약진이다. 편의상 이공계라 분류된 논문들은 산림, 지질, 광물, 해양, 식품, 농업, 의류, 건축, 의학,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동남아학계의 입장에서 이 분야는 ‘연구지리상’ 미지의 세계(terra incognita)이다. 이 분야의 인도네시아 연구 성과가 한국동남아학회에서 발표된 적이 없고 학회지에도 게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김형준·전제성, 2013, 97-98).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연구와 조직화 사이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고, 그간에 동남아학계가 추진해온 조직화에 심각한 결손이 있었던 것이다. 소위 한국의 동남아학계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이공계 연구자 간의 완벽한 분절 현상이 노정되어 왔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분절을 극복하고 접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리학자들의 각별한 역할이 기대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피력될 것이다.

3. 동남아 지역연구와 분과학문: 정치학과 인류학의 기여

해외지역연구는 지향성으로 볼 때 학제적 연구라 하지만, 학문분과별 특수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에서 지역연구에 적극적인 트로이카는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이었고(McVey, 1998), 일본에서는 경제학의 기여가 컸지만(Suheiro, 1997), 한국의 동남아연구 발전과정에서는 정치학과 인류학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치학자들이 동남아 연구기관 출범에 기여했고, 인류학자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가세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확고하게 한 축을 형성하였다. 경

표 5. 한국동남아연구소 정회원 분포: 지역 및 전공

지역	수	전공	수
인도네시아	11	정치학	23
태국	8	인류학	11
필리핀	7	역사학	5
베트남	6	경제학	5
말레이시아	5	사회학	2
미얀마	2	지리학	2
싱가포르	1	언론학	1
캄보디아	1	언어학	1
라오스	1	문학	0
브루나이	0	경영학	0
동티모르	0	농학	0
일반 및 비교	8	자연과학	0
계	50		

주의: 현황이 0인데 항목에 넣은 이유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결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문학, 경영학, 농학,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존재하지만 조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제학자들은 기대를 모았던 산업연구원이 해외지역 연구의 중심 역할을 상실하면서(박번순, 2011), 다른 한편으로 고려대를 거점으로 삼았던 역사학자들은 더딘 후속세대의 출현으로 인해 초창기의 선도적 역동성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정치학자와 인류학자의 수가 많고, 경제학자와 역사학자가 그 다음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연구기관 제도화와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기여가 컸던 정치학과와 인류학계의 역할을 이야기해 보겠다.

1) 기반형성자로서 정치학자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연구기관을 창설하고 공고화 하는데 있어서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정치학자들은 언어교습을 뛰어넘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출범시키는데 주도적이었으며, 학회와 연구소의 건설과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치학자들은 국내 최초의 초대학적 동남아 연구조직인 <동남아정치연구회>를 1년 만에 스스로 해체하고, 다른 학문분과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학제적인 <동남아지역연구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정치학자들은 지역연구의 학문적 독점이 아니라 학제적 개방을 선택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형성자(institution builder)로서의 실무를 자임했던 것이다. 공공재 창출을 위한 정치학자들의 기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국동남아학회 역대 12명의 회장 가운데 7명이 정치학자들이었고, 한국동남아연구소 2명의 이사장이 모두 정치학자였다. 이들은 자원동원 능력과 기획력을 발휘하여 재단과 정부의 지원금을 수수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연구기관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전제성, 2010a, 238-240).

동남아 연구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외교적 필요성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해왔다. 베트남 전쟁과 아세안 설립에서부터 오늘날의 동아시아지역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자극하는 외교적 수요가 존재하고 작동하였다. 이것이 정치학자들이 기반형성자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이었다. 그런데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역시 동남아연구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정치학계는 지역연구의 학제적 지향 속에서 자칫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이 국가, 권력, 정치과정, 정치체제, 정치변동, 전쟁과 평화 등 주제의 측면에서 핵심이 결코 흐려지지 않는 학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학자들은 순수성보다는 절충과 혼종을 통해 정치학이 발전해왔다고 학문의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안청시, 2002, 29-32; Almond, 1998; Dogan, 1998).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 진영에서 지역연구방법 및 교육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공방이 일어났지만(Bates, 1997; Johnson, 1997),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지역연구에 뛰어드는 대학원생들이 진취적이라 칭송받았다. 한국 정치학계의 이러한 개방적, 절충적, 진취적 기풍 덕분에 정치학자들이 해

외지역연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문후속세대 육성에도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전제성, 2010a, 244-247).

2) 연대형성자로서 인류학자

인류학자들은 현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정회원의 22%를 구성하고 있다. 11명 중에 10명이 소장학자들이다. 한국동남아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84명의 회원을 분류해보아도, 정치학자(39명, 46.4%) 다음으로 인류학자(13명, 15.5%)가 많았으며, 그 중에 7명의 인류학자가 2000년대에 박사학위를 마친 이들이었다(박승우, 2009, 230). 이는 인류학계가 동남아 전문가 육성에 성공적이었으며, 새로이 육성된 인류학자들이 동남아학계의 공공재 창출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인류학자들은 가족, 여성, 종족, 종교, 언어, 이주 및 각종 문화 관련 분야 연구 축적에 기여하였다. 특히 인류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도시의 아이들’ 수준에 머무는 경제학도와 정치학도들과 달리 지방과 농촌 마을 연구를 통하여 독보적인 자료와 지표의 자기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남아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간의 실존과 이동에 따라 국가적 경계를 비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그 특유의 본성에 입각하여 동남아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에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현지조사에 근거한 논문이 희소하고 현지어 문헌을 참조한 논문도 희소하다는 것이 한국의 해외지역연구 실태를 비판하는 주요 논거였다(신윤환·이성형, 1996; 신윤환, 1998).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연구 인류학자들의 출현은 지역연구형 신세대의 주류화를 촉진하였다(신세대 현지조사 경험담은 전제성 편저, 2014).

한국적 특수성에서 인류학은 정치학과 함께 동남아지역연구의 양대 축을 형성할 수 있었다. 경제학자들은 수치의 마법에 사로잡혀 지역연구를 ‘기초연구’라 부르며 구별 짓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포위당하였다(오명석 등, 2009). 본시 지역연구의 트로이카 중에 하나라는 역사학계는 중국 중심주의적 동양사학의 전통에 압도되어 간헐적인 후

속세대 육성의 더딘 트랙을 밟을 뿐이었다. 반면에 인류학은 ‘낮은 곳’으로 임하고 ‘외진 곳’으로 파고들면서 현지인들과 깊이 만나는 학도들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기에, 정치학과 함께 동남아연구라는 마차의 두 바퀴로 기능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인류학자들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연대형성자(solidarity maker)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제적 연대는 지역을 읽는 시각을 풍요롭게 하고 자료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단하고 보상이 적은 해외지역연구자의 인생사에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요즘 동남아연구 진영에서는 학제적 연대의 피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느 역사학자는 밤이 깊으면 정치학자에 대한 인문학자의 전투를 전개하곤 한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역연구의 본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학이 홀대받는 내력을 말하며 동남아학계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정치학자는 학제적 연구보다는 정치학계에 더 충실할 것을 요구하더니 우리와 결별하였다. 정치학이 앞장서서 협력을 이끌어냈던 연구조직 창설과 강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 동남아연구의 두 번째 도약기는 인류학도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인류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탐구하려는 인류학은 내포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포괄하는 주제의 외연이 확장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규율(discipline)은 약해지나 자유는 증폭되는 인류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제성, 2011a). 지금까지 주장된 정치

학계의 진취성과 인류학계의 유연성은 지리학계가 해외지역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특성들이기도 하다.

4.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지평확장자로서 지리학자?

1)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 현황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의 게재논문 목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해외지역연구, 특히 신흥지역연구에 대한 지리학계의 양적인 축적이 기대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지역지리학회는 지역지리(regional geography)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결성된 학회로서(손명철, 2002, 340), 2004년에는 특집까지 편성할 정도로 해외지역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회이다. 그런데 <표 6>에서 보이듯이 20년간 해외 관련 논문은, 지역연구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급적 넓게 포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논문의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 심각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 연구 논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5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해 보면, 해외지역연구 특집이 발간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17.5%로 정점을 이루고, 그 후 15.3%, 12.8%로 계속 줄어들었다.

외국연구의 지리적 편중도 심했다. 2010년대에 게재된 외국사례연구 23편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6명의 내국인 중국전문 지리학자를 배출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가시적인 규모를 형성하였다

표 6.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외국연구논문, 1995-2014년 상반기

시 기	1995~99	2000~04	2005~09	2010~14	계
해외 관련 연구*	11 (11.7%)	32 (17.5%)	40 (15.3%)	25 (12.8%)	108 (14.7%)
국내 외국인 연구**	0	1	4	6	11
전체 논문	94	183	261	196	734

* 해외 관련 연구는 외국 사례연구, 비교연구, 연구경향연구, 방법론, 동포 및 교민연구, 외국의 한국연구동향, 세계지역 단위(예: 서유럽)연구, 지역연합(예: EU) 관련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 국내체류 외국인 연구를 특별히 집계한 이유는 이런 연구가 해외지역연구로 나아가는 통로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는 중국연구(이강원, 2004)가 7편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연구가 6편으로 그 뒤를 쫓고, 영국연구가 2편,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에 관한 논문이 1편씩이었다. 동북아와 서양연구가 압도적이고, 동남아와 남아시아 연구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그 밖의 세계지역에 관해서는 논문이 전무했다.

물론 진전도 있었다. 1963년부터 1993년까지 3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요 지리학 학술지에 게재된 800편 가운데 외국 연구가 28편(3.5%)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의 절반이 미국에 관한 연구였다고 한다(김종욱, 1994, 5-7). 그렇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연구의 증대는 괄목할 만한 변화이자 중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 신흥지역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였다. 필자가 참여했던 2014년 지리학회도 마찬가지였다. 148개 발표문의 제목을 검토했을 때, 해외지역연구 및 비교연구 논문은 24편(15.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 사례를 포함한 발표문이 6편이나 되지만, 한국인 지리학자가 수행한 연구는 공동연구 1편에 불과했다. 해외 신흥지역연구의 추진은 여전히 지리학의 숙제로 남아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세계 각지에 대한 지역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할 때, 지리학계에서도 해외지역연구를 독려하는 논문이 발표되고(김종욱, 1994), 해외지역연구가 가속적으로 진흥되던 시기인 2000년대에는 다른 학문분과보다 지리학계의 지역연구가 미진함을 비판하고 성찰을 요구하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에서 지리학 이외의 타 분야에서의 해외 지역 연구가 지리학에서보다 활발하고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에서의 해외지역 연구가 너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신중하게 반성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김종규, 2001, 293).

당시의 지리학자들은 해외지역연구가 지리학에서 경시되어온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하였다. 한국에서 최초의 지리학 박사학위가 1976년에야 수여될 정도로 지리학 교육의 출발이 늦었기에 교사

및 교수를 양성하는데 우선 복무해야 했고, 초기 해외유학자들 대다수가 법칙 추구적 일반지리학(계통지리학) 관련 논문을 썼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귀국한 신세대 교수들이 대체로 계량적인 기법을 중시하였다는 점들이 지리학계가 해외지역 연구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배경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 집필과 지도제작에 연구인력이 대거 소모되는 사정과 해외조사의 연구비 조달 문제도 언급되었다(김종규, 2001, 288-291; 손명철, 2002, 342; 이진, 2004).

그런데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지리학 교육의 역사가 이제는 상당하다. 따라서 연구인력도 증가했다. 해외조사 연구비 지원도 예전보다 증대하였다. 계통지리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누차 제기되었다. 이론화와 과학화 열풍은 지리학만 겪은 현상이 아니다. 정치학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과학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 두 번째 열풍에서 지역연구가 공격받기도 했지만, 저명학자들이 이론적·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가운데(몽크·스나이다, 2012, 특히 G. Almond, R. Dahl, A. Lijphart, G. O'Donnell, J. Scott, A. Stepan의 주장), 지역연구의 가치와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방법은 질문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고(알몬드·겐코, 2005), 가설이나 이론 검증을 위한 자료의 가치를 인정하는(Johnson, 1997) 정치학자들의 노선에서 보편과 특수란 분리된 선택지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고민하는 보편 대 특수, 혹은 이론 대 지역의 대립이 필자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여겨졌다. 그런 논쟁보다는 10년 전에 중국 연구 지리학자가 제안한 바를 먼저 실천해 보길 권하고 싶다.

더 이상 “해외지역연구를 하긴 해야 되는 데...” 하며, 연구실에서 되풀이 것이 아니라, 현지에 몸을 던지고 나서, 자신의 몸에 절여 있는 지리학이 말을 하도록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다(이강원, 2004, 248).

2) 지리학의 힘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지역연구에 관한 지리학의 실적은 앞으로 이야기할 지리학의 가능성과 날카

롭게 몽타주를 이룬다. 지리학은 해외지역연구의 기초를 제시한다. 지역을 말하고자 할 때는 누구나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구본과 지도를 보여주는 지리교사가 학생들에게 세계지역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전하는 첫 번째 인물일 것이다. 필자의 동남아시아정치론 강의도 동남아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동남아 지도 제작이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지명의 대중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가르친다(에머슨, 1998).

그런데 자기가 다루는 지역이 왜 하나의 단위인가를 설명하려면 지역지도와 전쟁이야기를 넘어서 더 다각적인 설명이 부연되어야 한다. 더구나 세계지역단위는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계가 확정적이지 않고 논쟁적이고 유동적이다(다카야 요시카즈, 1997). 동남아 지역도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닫히고 고립된 지역이 아니다. 지리적 측면만 보아도 ‘바다의 아시아’, ‘몬순 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아시아’ 등 다양한 범위로 재설정될 수 있는 지역이다(하마시타 다케시, 2001; 마츠야마 마사지, 2001; 다카시 시라이시, 2011).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도 동남아 지역을 ‘열린 지역체계’로 파악하고 다른 지역단위와 연동된 역사를 탐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사명, 2006). 그런데 지역의 구분과 연계는 지리학이 오랫동안 씨름해 온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을 말하려면 지리학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분리와 연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리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동남아에서 산과 숲이 사람과 문명을 나누고, 강과 바다가 교환과 소통을 이루게 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걷기, 보기, 듣기”로 요약되는 현지조사(후루카와, 1993)에 임할 때 역시 지리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다면 지리학의 가치는 도입용도일 뿐이다.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지리학의 더욱 흥미진진한 기여는 지리학의 본성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도출

된다. 지리학은 “지표 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상식적 본성부터 이야기해보자. 이러한 정의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인류학보다 훨씬 더 광대한 주제 공간을 포괄하는 지리학에 대한 강렬한 인상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연구 발전에 지리학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안겨준다. 지표 위의 모든 것을 연구한다는 지리학자들이라면 인간과 환경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외지역연구의 지평을 미개척 분야로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 지역연구 영역에서도 지리학자들은 다른 분과의 학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지역의 중요한 면모를 일깨워주고 있다. 동남아 입문서부터 지리학자들은 남다른 내용을 담아낸다. 지리학자 로날드 힐(Ronald Hill)의 동남아 입문서에는 육지와 바다, 파도와 해안선, 화산과 삼림, 광물과 에너지, 기온과 습도, 비와 바람(몬순계절풍), 식물과 동물, 그리고 관련 산업들, 즉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시스템, 교통과 인프라, 도시화와 환경문제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Hill, 2002). 지리학자 조나단 리그(Jonathan Ligg)도 기후, 물, 숲, 쌀, 영농방식, 천연자원, 개발과 환경, 도시화의 제문제를 다루었고(Rigg, 1991), 대안적 발전, 배제된 사람들, 농촌과 공장세계와 그 연계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Rigg, 2006).

지리학자들의 관심사는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를테면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식물과 광물은 동남아의 식민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매개가 되었다. 유럽인들이 필사적으로 동남아에 당도하고자 했던 이유는 황금의 무게로 거래되던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위베르·부아베르, 2001). 고무, 사탕수수, 커피 같은 환금작물이 식민경영의 자원이 되었다. 농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광물의 개발과 교역이 현대 동남아의 지구화와 사회구성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크라우치, 2009).

한국인 지리학자들도 새롭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이른바 동남아학계에서 광산, 환경, 공정무역, 설탕이나 팜오일에 대해 글을 쓴 유일한 학자가 지리학자이고(엄은희, 2008; 2009; 2010; 2014), 요리, 과일, 커피, 나비, 그리고 여행의 교

육적 가치에 관하여 글을 쓴 유일한 학자가 또한 지리학자이다(김학희, 2005; 2006; 김이재, 2012). 정치학자와 비교하면 지리학자의 본성적 기여가 더욱 선명하게 파악된다. 최근에 필자는 조미료 업체를 사례로 인도네시아 투자 한인기업의 노사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전제성, 2014). 이 때 필자는 조미료의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에 대한 연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투자 한인기업을 조사한 지리학자는 산림개발 기업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주문받은 연구(엄은희, 2014a)를 넘어서 팜오일에 관한 연구에 뛰어 들었다(엄은희, 2014b). 커피를 너무나 사랑하는 베트남 연구 정치학자가 있지만, 베트남 커피산업 연구에 먼저 도전한 이는 지리학자였다(김이재, 2014).

지리학의 본성에 대한 두 번째 상식은 지리학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다리 역할을 하는 종합학문”이라는 것이다. 지리학도라면 신입생 때부터 알고 있는 이런 지리학의 본성이 바로 해외 지역연구에서 지리학이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 파워인 것이다. 앞서 한국의 동남아연구 현황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해외지역연구에서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자연과학·공학) 연구는 분리되어 있다.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의 분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결손이다. 필자가 이제야 느끼는 문제가 이미 20년 전에 다름 아닌 지리학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해외지역연구가 주로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온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는 의당 지역의 주민 생활과 그 무대인 자연 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로 주민 생활을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과 그 무대인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공조하는 가운데 해외지역연구가 수행되어야 이상적이다(김종욱, 1994, 9).

일본의 경우, 동남아연구의 출발단계부터 자연과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 덕분에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가 생태학적 지평을 개척하고 광범한 학제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Hayami 2006; 엄은희, 2012). 요즘에는 인

문·사회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 의학자들과 함께 ‘인생’(생명)과 ‘녹색’(환경)을 핵심어로 삼고 노령사회와 재난관리에 대한 거대 프로젝트를 수년간 수행하고 있다(전제성, 2011b).

우리나라에서도 이공계연구자들이 이미 다수의 성과를 출판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도 폭넓은 학제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서로 연결된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지리학자들이라면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조직된 동남아학계를 이공계의 미조직 연구자 집단과 연결시켜 광범한 학제적 연구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이 나서서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편협한 지역학의 자족을 깨고 연구 주제와 학제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네트워크, 즉 지평 확장자(horizontal networker)로서 활약하게 된다면,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세 번째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과학문의 경계가 여전히 강조되는 상황인지를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지리학의 기여가 지리학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리학자가 답변할 문제이고 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지리학의 경쟁력은 현지 조사에 기초한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타학문보다 월등한 공간 분석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리학 자체의 발전을 이루며, 사회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리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김종규, 2001, 294).

정치학의 지역연구 경험에 근거하여 필자도 유사하게 답할 수 있다. 지리학자들이 해외지역연구를 많이 생산하고 그것이 즐겨 읽히지며, 교량적 역할을 통하여 해외지역연구학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부상한다면, 그것이 곧 지리학의 위상 강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5. 결론

지난 2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한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사례로 학계의 성장전략, 연구 성과 및

한계, 그리고 학문분야별 기여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리학이 동남아연구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규모 있는 연구자 집단과 연구 성과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지리학이 그 본성으로 볼 때 해외지역연구에 기여할 가능성이 심대하다는 기대도 피력하였다. 그것은 지리학자가 미개척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연구의 분절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지리학의 잠재력을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발휘하려면, 학계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자연발생성에 해외지역연구를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동남아연구 역사를 통해 강조했듯이 기성학자들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의식적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보편 대 특수의 기초적인 논의에 만족하지 말고, 경험과학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데이터)를 확인하고 창출하는 해외지역연구가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진정한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지리학자들이 각종 해외지역연구조직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거기에 정치학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하여 ‘냉전의 산물’이라거나 ‘패권 추구’의 장이라고 혐오하며 거리를 뒤흔는 안된다. 필자가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분야별 기여를 분석하며 보여주었듯이,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나름의 장점을 살려 함께 어울리고 봉사함으로써 공공재 창출에 이바지한 역사를 이해하고 그렇게 형성된 자원을 지리학자들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개입해야 한다. 해외지역연구 조직들에서 지리학적 관심사를 반영한 패널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연결 짓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외지역연구학계도 연구주제 확장과 폭넓은 학제성 구현에 있어 지리학이 지닌 장점을 인지하고 지리학자들을 기획, 연구, 편집, 출판 같은 핵심 업무에 포진시켜 지리학의 파위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리학계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학생들을 가능한 한 빨리 현지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은 대학원도 늦다면서 학부로 교육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동남아 현장으로 내보내려면, 동남아학계의 각

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안내하길 권한다. 앞으로 해외지역연구에 도전하는 지리학도가 많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며 줄고를 마친다.¹⁾

주

- 1) 이 논문은 한국지역지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표할 기회를 누린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초대하고 환대해주신 손명원 회장님 이하 한국지역지리학회 임원진, 발표장에서 건설적 토론과 제안을 해주신 엄은희, 윤옥경 선생님을 비롯한 심포지엄 참여 지리학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문헌

- 김이재, 2012, *평기 동남아: 사랑과 행복의 상징 두리안을 찾아 떠나는 힐링 로드*, 시공사, 서울.
- 김이재, 2014, *베트남 커피 산업의 특징과 현지 기업의 실험과 도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아세안공동체 출범과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지평), 발표논문집.
- 김종규, 2001, *한국지리와 해외지역 연구*,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 연구와 지역 교육*, 지리교육논집, 31.
- 김학회, 2005, *지리교육 소재로서 음식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 김학회, 200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 김형준·전제성, 2013,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아시아리뷰, 3(1).
- 다카시 시라이시, 류교열 등(역), 2011, *바다의 제국*, 선인.
- 다카야 요시카즈, 1997, *‘지역’이란 무엇인가?*, 야노 토루(편),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서울.
- 마츠야마 마사지, 2001, *문순이 탁월한 인도양*, 오모토 케이이치 등(편), 김현영(역), *바다의 아시아 2: 문순 문화권*, 다리미디어.
- 몽크, 헤라르도·리처드 스나이더, 2012, *그들은 어떻게*

- 계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다, 1, 2, 후마니타스.
- 박번순, 2011,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아시아리뷰, 1(1).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 배병인·전제성·구갑우, 201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 장달중·함택영(편), 21세기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사회평론.
- 서정인, 2012, 한국의 대ASEAN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2(1).
- 손명철, 2002, 지역연구, 대한민국학술원(편), 한국의 학술연구, 대한민국학술원.
- 신윤환, 1998,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권태환(편),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 쓰보우치 요시히로, 1997, 전문분야와 지역연구, 야노 토루(편),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서울.
- 안청시, 2002, 정치학의 전통과 연구방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서울.
- 알몬드, 가브리엘·스티븐 켄코, 2005, 구름과 세계, 그리고 정치학 연구, 김웅진 등(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1, 한울.
- 엄은희, 2008, 환경의 신자유주의화와 제3세계 환경의 변화: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은희, 2009, 제3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정의적 접근과 지리교육의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1).
- 엄은희, 2010, 공정무역 생산자의 조직화와 국제적 관계망: 필리핀 마스코마도 생산자 조직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33.
- 엄은희, 2012, 2011 Southeast Asia Seminar 참가기, 동남아시아연구, 22(12).
- 엄은희, 2014a, 산림개발 기업과 지역사회 공존의 과제: 인도네시아 코린도의 사례, 오명석 편,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기업들: 삼성, 미원, 삼익, 코린도의 동남아 현지화 전략, 늘민.
- 엄은희, 2014b, 팜오일의 정치생태학: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한국동남아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아세안공동체 출범과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지평), 발표논문집.
- 엄한진, 2011, 아랍세계 논의의 특징과 오리엔탈리즘적 전통, 아시아리뷰, 1(1).
- 에머슨, 도널드, 문현아(역), 1998, 동남아시아: 이름의 유래와 역사, 김정일(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서울.
- 오명석 등, 2008,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동남아시아연구, 18(2).
- 위베르, 아니·부아베르, 클로틸로, 2001, 향신료, 창해, 서울.
- 이강원, 2004, 한국 지리학계의 중국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 이성형·전제성·김용복, 2004,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의 실태와 과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이성형·전제성, 2008, 제3세계의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학술원(편),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사회학, 대한민국학술원, 서울.
- 이 전, 2004, 해외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 이지은, 2011, 남아시아연구 리뷰: 현황과 과제, 아시아리뷰, 1(1).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 전제성, 2010,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정치학계의 기여, 국제정치논총, 50(2).
- 전제성, 2011a, 해외지역연구에서 인류학의 위치와 역할: 동남아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인류학의 위치를 묻다), 발표논문집.
- 전제성, 2011b, 참관기: 제2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남아시아연구, 21(3).
- 전제성, 2014, 해외투자 한인기업 노사관계의 현지화: 미원인도네시아 사례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4(2).
- 전제성(편저), 2014, 맨발의 학자들: 동남아 전문

- 가 6인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 눌민, 서울.
-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 전제성·유완또,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이주를 통한 문화 교류, 이매진.
- 조원빈, 2012,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2(2).
- 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2014년 지리학대회(융합시대의 신지리학) 발표논문 요약집.
- 크라우치, 해롤드, 신윤환·전제성(역), 2009, 동남아 권위주의의 역사적 기원, 이매진, 서울.
- 한국지역지리학회, 1995~201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0(2).
- 홍금수, 2004, 세계화시대의 아메리카지역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 하마시다 다케시, 2001, 바다의 아시아가 열리는 세계, 오모토 케이이치 등(편), 김정환(역), 바다의 아시아 1: 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
- 후루카와 히사오, 1993, 현지조사: 걷기, 보기, 듣기, 야노 토루(편),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서울.
- Almond, Gabriel, 1998, Political Science: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Robert E. Goodin & Hans-Dieter Klingemann(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s, Robert H., 1997,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A Useful Controversy?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0(2).
- Cheta, 2011, Berawal dari Kamus Militer(군대 사전으로부터 출발하다), *Tempo*, 14-20, November.
- Dogan, Mattei, 1998, Political Science and the Other Social Sciences, Robert E. Goodin & Hans-Dieter Klingemann(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yami, Yoko, 2006. Towards Multi-Laterality in Southeast Asian Studies: Perspectives from Japan, in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ISEAS, Singapore.
- Hill, Ronald, 2002, *Southeast Asia: People, Land and Economy*. Allen & Unwin, NSW.
- Jeon, Je Seong, 2011, Historical Dynamic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
- Johnson, Chalmers, 1997, Preconception vs Observation, or the Contributions of Rational Choice Theory and Area Studies to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0(2).
- Kuhonta, Erik Martinez, Dan Slater, and Tuong Vu(eds.), 2008, *Southeast Asia in Political Science: Theory, Region, and Qualitative 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McVey, Ruth,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in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The Frank H. Golay Memorial Lectures 2 and 3,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Ithaca.
- Rigg, Jonathan, 1991, *Southeast Asia: A Region in Transition - A Thematic Human Geography of the ASEAN Region*, Unwin Hyman, London et al.
- Rigg, Jonathan, 2006, *Southeast Asia: The Human Landscape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Second Edition, Routledge, London & New York.
- Suheiro, Akira, 1997, Bodies of Knowledge: How Thinktanks Have Affected Japan's Postwar Research on Asia, *Social Science Japan: Newsletter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9.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http://asia.snu.ac.kr>
전북대학교 동아시아·다문화전공/ <http://meas.chonbuk.ac.kr>
한국동남아연구소/ <http://www.kiseas.org>
한국동남아학회/ <http://www.kaseas.org>
한국지역지리학회/ <http://society.kisti.re.kr/kg>
- (접수: 2014.08.06, 수정: 2014.11.14, 채택: 2014.11.20)